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 이 열친심 勉爾孜孜 惜寸陰 면이 자자 석촌음 老矣無能 徒自悔 노의 무능 도자회 頭邊歲月 苦駸駸 두 변 세 월 고킴침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贏金 유자만영금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	--	--	--	--

둔촌의 얼을 잇는 문학의 향연 제31회 둔촌 청소년문학상 시상식 성료



“청소년들이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

초여름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지난 6월 27일(토), 성남시 하대원동 둔촌 재실에서는 미래의 문학 거장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맞이하는 설렘과 열기로 가득하였다.

우리 광주이씨 대종회의 자랑스러운 선조이신 둔촌 이집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학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제31회 둔촌 청소년 문학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문인협회 이예지 회장과 문인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참가한 초·중·고등학생 수상자들과 학부모 등 내외빈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둔촌 선생의 일대기, 1,500만 관객의 영화를 뛰어넘는 감동으로

주영 대종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 길을 찾아준 경기도 문인들과 꿈을 향해 전진하는 학생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학부모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고려말의 문장가이자 학자이신 둔촌 선생의 파란만장하면서도 곧은 일대기를 경청

하는 청중들에게 들려주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특히 주영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거머쥔 김연재 학생의 수상작을 언급하며 특별한 감회를 밝혔다.

“최근 1,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상을 받은 김연재 학생은 둔촌 선생의 일대기를 담아, 이 흥행 영화보다 더 깊은 울림과 뜻깊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당찬 소망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고 가슴 벅찬 포부가 아닙니까?” 김연재 학생의 이 아름다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 광주이씨 대종회에서도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현장에 모인 이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건네는 지혜
마지막으로 주영 회장은 시상식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올바른 리더로 성장

하기 위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지혜로 신언서판을 강조했다.

- 신(身):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씩씩한 사람.
- 언(言): 자기의 생각을 바르고 조리있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 서(書): 좋은 글을 쓰고 학문에 정진하는 사람.
- 판(判): 대사에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려내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

주영 회장은 “오늘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 청소년들이 글솜씨뿐만 아니라, 이 신언서판을 두루 갖춘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격려와 당부의 말을 맺었다.

선조의 거룩한 뜻이 서린 성남 둔촌 재실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청소년들에게는 문학적 꿈을 펼치는 도약대가 되었고, 대종회에서는 둔촌 선조의 가르침을 미래 세대에게 이어주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둔촌 청소년 문학상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문학의 산실로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대중회 회장 축하

“전통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문학의 꽃”



안녕하십니까, 廣州이씨 대중회 회장 이주영입니다.

신록의 계절에 우리 문종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함께 ‘제31회 둔촌 청소년 문학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수상하신 청소년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느라 애쓰신 (사)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이예지 회장님과 심사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이씨는 예로부터 학문과 절의개를 중시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인재를 배출해 온 명문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둔촌(遁村) 선조님은 고결한 선비 정신과 후학 양성을 향한 열정이

우리 광주이씨 가문을 빛내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조상님의 지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문학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 한 줄의 글귀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표현해 본 오늘의 경험은 여러분이 미래의 주역

으로 성장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대중회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지혜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각자의 분야에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광주이씨 대중회와 지파 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경기도 문인협회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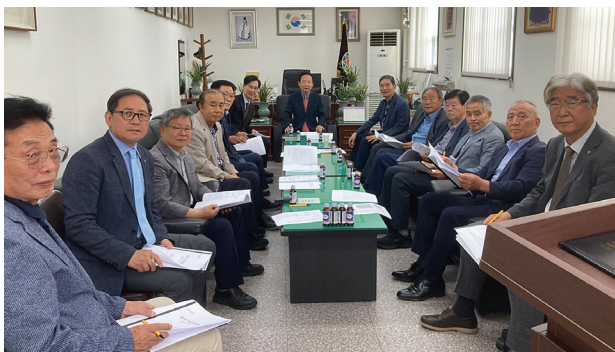
광주이씨 대중회 회장 이주영

제31회 둔촌청소년문학상 입상자명단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위	학교,학년	성명	학교,학년	성명	학교,학년	성명	등 위	학교,학년	성명	학교,학년	성명	학교,학년	성명	학교,학년	성명	학교,학년	성명
대상	서당초 6	김현규	오포중 1	서영민	보라고 3	김연재	차하	조현초 6	정호이	진건중 1	박세건	동탄중양고 3	임서윤				
장원	미사중앙초 6	류연재	수현중 1	오서연	송신고 2	박세연		함현초 5	주하연	송림중 3	신효재	현암고 3	이지예				
			성일중 3	유연승	숙지고 3	정윤찬		신일초 5	김주원	양오중 2	황지민	동광고 1	김지우				
차상	성남초 5	김윤서	지도중 1	진민선	광주중앙고 2	이혜원	장려	용인신봉초 6	박서준	성남여중 2	이시연	안양예고 2	김영건				
	파주대원초6	김하린	양수중 3	김희원	신갈고 3	이지연		검단초 6	염서연	안중중 3	박은유	동원동우고 2	김해린				
	단남초 5	황재인	안일중 3	정선율	매원고 1	조예진		금신초 6	김서현	내정중 3	정은재	성일고 1	김은찬				
	신동초 4	김일우	홍천중 2	정수홍	가평고 2	김천우		중탐초 5	김라운	청옥중 1	김도윤	안산경안고 1	유이나				
	돌마초 5	손효진	안서중 1	이민성	전곡고 1	최성수		초림초 5	최혜린	동광중 3	이서연	김포외국어고2	김가은				
차하	새빛초 5	윤하준	판교중 3	김태은	운천고 3	문예빈		현화초 6	이서진	평택여중	공은별	동우여고 3	장현원				
	카리크리스천스쿨5	김빛나	현화중 1	윤승연	양서고 2	조예린		현일초 6	장민서			이천양정여고2	이지민				

대중회 자문위원회 개최,
주요 현안 추진 위한 ‘특위 구성’ 논의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행사, 전자 족보, 규약 개정 등 3대 현안 집중 다뤄



대중회(회장 주영)는 문종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현안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주영 대중회장이 각 지파 중회 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정중히 모신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대중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골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문종의 가장 큰 이슈인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행사를 비롯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전자 족보’ 구축 사업, 그리고 대

중회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대중회 규약 개정’의 3대 안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이러한 거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특위 구성 방안과 실행 방향에 대해 강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주영 대중회장은 ‘각 지파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특위 구성을 통해 문종의 대업들을 가장 투명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중회 임원회의 문중의 미래를 향한 치열한 고뇌와 화합의 현장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날, 대중회 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했다.

송조와 돈목의 기치 아래 문중의 백년대계를 논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임원들의 눈빛에는 남다른 사명감이 서려 있었다.

성원이 이루어져 주영 대중회장의 힘찬 개회 선언과 함께, 오늘 임원 회의의 가장 핵심 화두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먼저 회의를 뜨겁게 달군 것은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행사특별위원회' 안건이었다.

7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아 선조님의 높은 덕망과 학문적 업적을 세상에 널리 알릴 대대적인 축제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격정적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반해 문중의 내실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맞섰다. 임원들은 저마다 문중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도 높은 논의를 이어갔다.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서 주영 회장의 주관 아래 심도 있는 토론이 지속되었으나, 이 안건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대중회 집

행부에서 주관을하기로 결의했다. 뒤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전자 족보 편찬 특별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자, 회의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하나로 모였다. 종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뿌리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중심의 전자 족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다.

앞선 토론에선 치열하게 논쟁했던 임원들은 문중의 현대화라는 대의 앞에서는 일말의 이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가결의 뜻을 모았다. 열기는 마지막 안건인 '규약 개정 특별위원회' 안으로 이어졌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중회 운영의 기틀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히 살피는 진지한 논의 끝에, 이 안건 역시 참석 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문중의 발전과 화합



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기꺼이 손을 잡는 광주이씨 대중회의 명문가다운 품격이 고스란히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안건 토의가 끝나고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주영 회장의 얼굴과 장시간 이어진 논의로 땀방울이 맺힌 임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묘한 안도감과 자부심이 교차했다.

오늘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중회는 과거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히 지켜내는 동시에, 전자 족보와 규약 개정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욱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중회 단신

■ 대중회와 성남문화원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 예술제〉 성공 개최를 위해 뜻 모아



대중회 집행부와 성남문화원(원장 방영기)은 고려말의 대문호이자 충신인 둔촌 이집(李集) 선조의 탄신 700주년을 맞아, 성남시를 대표하는 뜻깊은 역사 문화 축제를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이번 기념행사가 단순한 문중 행사를 넘어 성남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역사를 되새기는 '성남 둔촌 예술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역동적인 가두퍼레이드: 둔촌 선조의 서슬 퍼런 기개와 역사적 발자취를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을 기획하여 축제의 서

막을 화려하게 연다.

○ 실내 체육관 문화·체험 행사: 성남시 실내 체육관을 활용해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전통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축제의 깊이를 더한다.

광주이씨 대중회와 성남문화원은 이번 축제가 성남시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협조와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둔촌 선조의 고결한 선비 정신과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성남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층 높일 이번 700주년 기념 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측은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둔촌 선조의 학문과 지조 여주 <세종신문> 주간지에 시문 110편 연재 확정

우리 문중의 고결한 정신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는 뜻깊은 문화 사업 소식을 전한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충희공(휘 인손) 재실 증봉(광릉부원군파) 관리소장의 적극적인 추천과



주선으로, 고려말 대 유학자이자 우리 문중의 정신적 지주이신 둔촌(遁村) 이집(李集) 선생의 문학 세계를 담은 시문 110편이 7월 두번째 주부터 여주 시민을 위한 지역 주간지인 <세종신문>에 전격 연재된다.

이번 연재는 둔촌 선조의 주옥같은 시문 110편을 매주 정기적으로 소개해, 여주 지역 주민들에게 고전의 깊은 울림과 선조의 고고한 삶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문중의 문화적 자산을 대외적으로 선양하여 광주이씨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여주 지역에 우리 선조의 학문과 사상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힘써 주신 증봉 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파종회 소식

광릉부원군파종회

■ 장례원 판결사 封회성군 諡충민공(諱 時茂) 불천위제 봉행

광릉부원군파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6년 6월 25일 회성군 순절 434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불천위제에는 대종회에서 주홍 부회장, 용문 재무이사, 종덕 문화 이사, 재경 화수회 용두 회장, 충희공 종회 응재 총무, 관찰사공 종회 민재 총무 진호 재무이사, 이봉덕에서 종민 회장을 비롯하여 종환 총무, 용관, 명수, 주홍 종인, 삼봉덕에서 종두 회장, 종준 부회장, 영래 총무이사, 사봉덕에서 용춘 재무이사, 충민공 종회 찬수 총무이사, 오봉덕에서 충교 전 회장, 중순 부회장, 시하 부회장 겸 총무이사, 참판공종회에서 용 부회장, 응호 부회장, 좌통례공파 통제사공 종회 대래 총무이사, 전국 청장년 연합회 종우 회장, 대종회 결재 전 총무이사, 동고종회 전 종환 회장, 그리고 본 종회에서는 만재, 종길 부회장을 비롯해서 주신 대쌍령 종회장, 부제학공종회 종훈 회장, 종덕 부회장 등 60여 명의 종친이 참석하였다. 문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 각 지파 회장 추모사 그리고 문수 총무로부터 행적 소개와 일문육상(一門六喪)관련 부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례에는 삼봉덕 영래 총무이사의 집례로 대축에는 만재 부회장, 집사에는 문재, 무환, 주홍, 종경 종인 이 맡아 수고하였고, 초헌례에는 이봉 종회 종민 회장, 아헌례에는 삼봉 종회 종두 회장, 종헌례에는 대종회 결재 전 총무이사가 헌작하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사하신 종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행적

회성군 선조의 휘(諱)는 시무(時茂)이고 자(字)는 군우(君遇)이며 시호(諡號)는 충민(忠愍)이다. 공께서는 1532(중종27)년에 출생하시어 1592년(선조25) 임진년에 순사(殉死)하시었다. 공께서는 광릉부원군 파조님의 4대 종손으로 1576년(선조9)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재임 시 임진란을 만나니 향년 61세

였다. 공께서는 노환으로 종군(從君)치 못하고 아들 정립(淸立)으로 하여금 임금을 호종케 하였다.

공께서는 임금의 호종을 위해 떠나는 아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신하된 사람이 의를 위해서 순절하는 것은 본분에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순절한 집의 자손들은 나라에 보고하여 정려(旌閭)를 받으려 하며, 또한 이를 비문에 새겨서 후세에 자랑을 하려 하는가, 비록 지금 내가 선산 밑으로 피난을 가지만 그곳은 서울과 가까운 곳이다. 더구나 나는 일반 백성들과 다르니, 만일 후일에 갑자기 왜적을 만난다면 적들은 반드시 나의 항복을 받으려 할 것이고, 나는 스스로 목숨을 바칠 것이니 너는 후일에 나의 사실을 나라에 알리지 말고, 비문에 새기지도 말라” 하고 아들에게 이른 뒤, 가족을 데리고 선산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암사동) 집 뒤에 산기슭은 가파르게 솟아 있고 위에는 편편한 대가 있으며 한강이 가로질러 있다. 공은 그 대(臺)를 침신 이라 부르고 그 마을을 우모골 이라 불렀다.(여기서 침신은 임금이 행차하신 곳을 바라본다는 뜻이며, 우모는 산소가 가까이 있어 부모를 사모한다는 뜻이다.)

공께서는 날마다 이른 새벽에 조복으로 갈아입고, 산대에 올라 임금이 파천하신 북쪽을 향하여 네 번 절하고 임금의 무사 환궁과 국가의 안정을 극진히 빌었다. 그러나 아나나 다를까! 1592년(陰)5월 11일 열여섯 명의 왜놈들이 군복 차림으로, 공께서 대(臺)에 오르기만을 기다렸다가 공께서 나타나니, 공을 에워싸고 창을 목에 들이대며 항복을 하라고 위협을 하였다. 그러나 공께서는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큰소리로 ‘조선의 대신(大臣)으로 섬나라 왜놈들에게 항복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만 못하다’ 하고 왜적을 대갈일성 꾸짖는 소리가 산 밑 집까지 들렸다. 가족들은 모두 놀라서 허겁지겁 산대에 올라 숲으로 숨어서 공께서 화를 당하신 것을 목격하고 왜놈들의 겁



탈을 피해 강물에 모두 투강하여 죽음을 택하기로 하였다.

가족들은 투강하기를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였다. 이때 공을 따라 죽은 사람은 공의 배(配)이신 전주이씨, 둘째 며느리 경주김씨, 손부 광주안씨, 次子 정견의 손녀, 그리고 차자(次子) 정견은 창에 찔려 쓰러졌으나 요행히도 살아났으나 후일 창 독(毒)으로 인하여 3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이처럼 한 집안에서 충신(忠臣)과 열부(烈夫) 열녀(烈女)가 나왔고 하루에 다섯 사람이 죽고, 뒤따라서 또 한 사람이 죽어 일문육상(一門六喪)을 당하니 나라에서는 이를 기리기 위해 공의 뜻과는 달리 정문(旌門)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공께서는 어떠한 여건에도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나라와 조상을 위해 숭고한 정신으로 부끄러움 없이 온몸을 바치시었다. 한편 공께서 저술한 역대통지(歷代通志) 45권과 필어(筆語) 12권 가례집(家禮集) 3권이 있었으나 왜란 시 방화로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공께서는 왜란(倭亂) 후 순충보국공신에 책봉되었고 자헌대부 이조판서, 지경연의금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겸 지중추성군판사, 세자좌빈객, 오위도총관에 증직(贈職)되었고 회성군(淮城君)에 봉작되었다. 이후 1599년(선조32) 의정부 좌찬성, 판의금부사, 세자이사에 가증(加贈)되시었다. 공의 배(配)이신 전주이씨는 종실(宗室 임금의 친족) 諱 익(익원군 1520-1544)의 따님이다. 공의 제사는 국불천지위로 모신다.

-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 황

문경공파종회

■ 충주청장년회 월례모임

충주청장년회는 지난 6월 19일(금) 월례모임을 갖고 앞으로 더 친취적인 모임으로 나아가길 방향과, 회원 감소에 따른 청년회 결성 방안에 대해



여 의견을 나누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종 종회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메시지 회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드는 만큼 회원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자는 덕담과 당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녁 식사를 끝으로 월례 모임을 마쳤다.

- 충주청장년회 회장 종우 김

광천부원군파종회

■ 조선시대 공신이야기

공신(功臣)은 국가와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려진 칭호다. 태조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개국공신(開國功臣)의 칭호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반란 등을 평정하였거나 새로운 임금을 옹립(擁立)하는데 공이 있는 자들에게 공신의 칭호를 사여(賜與)하였다. 그 결과 총 28차에 이르는 공신이 있었다. 공의 크기에 따라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칭호가 내려졌다.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칭호, 토지, 노비 등이 지급되었고 임금을 모시고 단결을 맹세하는 공신 회맹제(功臣會盟祭)와 잔치가 열렸으며, 공신 교서, 초상화와 같은 징표가 수여되었다. 또한 자손에게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음직(蔭職)을 주는 등 최고의 포상과 특권이 수여되었다.

공신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으로는 공신도감(功臣都監), 충훈부(忠勳府), 녹훈도감(錄勳都監) 등이 있었고, 공신에게 수여한 상훈 문서를

공신녹권(功臣錄券) 또는 공신상훈교서(功臣常勳敎書)라 칭하였다.

광주이씨 공신은 대종회 기록에 1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광천부원군파의 공신은 어느 분이 계신지 살펴보자.

극증(諱 克增) 선조님의 익대공신과 좌리공신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뒤돌아 살펴보면, 1591년(선조24)에 종계변무(宗系辨誣) 즉 명나라 역사에 이씨 세계(世系)가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친 공으로 내린 훈명인 광국원종공신(光國原從功臣)에 7대 선경(善慶), 8대 수강(壽岡), 연록(延祿) 세분이 녹훈(錄勳)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592년(선조25) 임진왜란때 한양에서 의주까지 시종(始終) 어가(御駕)를 모신 사람에게 1604년(선조37년)에 호성공신(扈聖功臣)을 녹훈(錄勳)하였는데 극증(克增) 선조님의 증손인 청도 군수 의경(宜慶)의 둘째 아들 연록(延祿) 선조께서 내의원직장(內醫院直長)으로 계실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허준과 함께 호성공신 3등에 녹훈되어 광계군(廣溪郡)에 봉군(封君) 되시고 동지사(同知事)를 거쳐 후에 한성판윤에 추증되셨다. 그러나 연록 선조께서 서자(庶子)라는 이유로 유명무실하게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 공이 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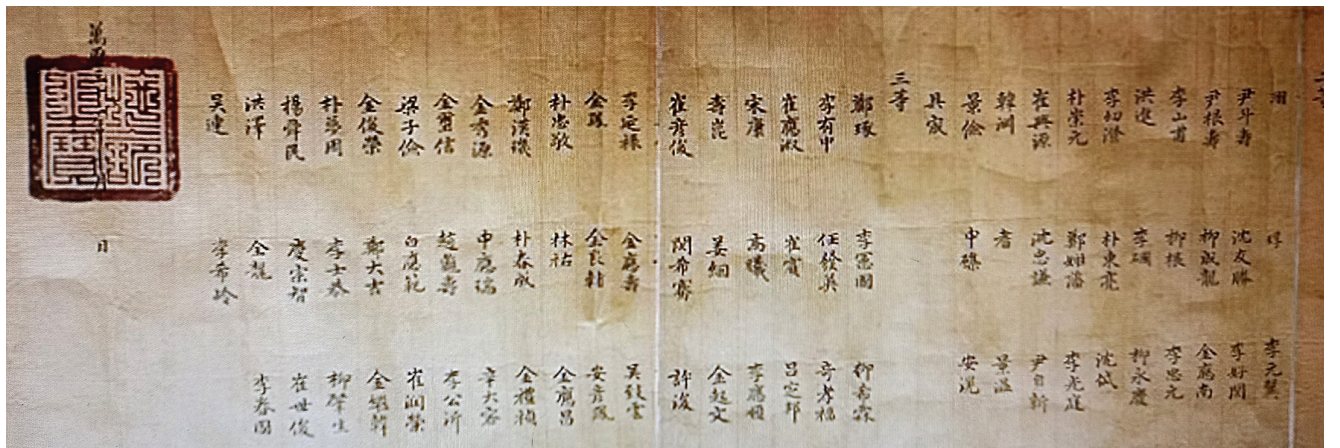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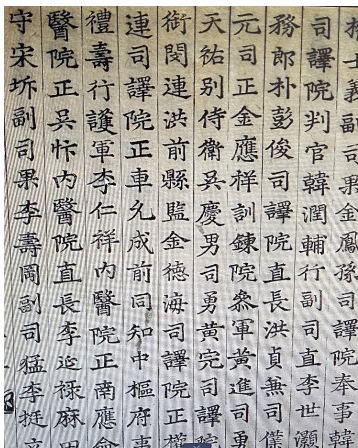
에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직계 후손이 절손되어 그 명맥(命脈)을 이어가지 못하고 비석조차 없는 현실이 후손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연록 선조는 광국원종공신이며, 광주이씨 문중에서 유일하게 호성공신 정공신에 책봉되었다)

연록 선조께서 호성공신에 녹훈되고, 부(父)이
신 의경(宜慶) 선조님도 보조공신(補祚功臣) 녹훈
과 함께 광흥군(廣興君)에 봉군되고 참판에 추증
되었다. [봉군(封君)도 세분이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극증 선조님 이후 공신에 네 분이 더 녹훈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손으로서 생각해 보건대, 공신 책봉 과정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는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높고 낮음이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그 자체로서 영광(榮光)인 것이며, 선조님의 발자취와 실록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과 정체성을 확립함에 감사드리고, 후손의 무관심에 송구(慙懼)스럽다. 마지막으로 당부 하건대, 우리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숭조 현양 하는 보본반시(報本反始)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겨 후손에게 영원히 전달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광국원종공신녹권 2.호성공신교서

- 광천부원군파 온양종회장 종구 記



관찰사공종회

■ 관찰사공종회 회장
이·취임식 거행

2026년 6월 2일 (화) 11시. 관찰사공종회 회의실에서 전임 재석 회장과 신임 형래 회장의 회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관찰사공종회 선례, 효석 고문과 효진 감사, 종성 참판공파 회장, 용주 좌통례공파 회장 그리고 다수의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임하는 재석 회장은 퇴임사에서 3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지 못한 데 대해 많은 아쉬움을 얘기하고, 종사를 위해 종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선조님 묘소와 사적 기록을 위하여 좀 더 노력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다고 하며 후임이신

형래 회장께서 종사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임 형래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회장이 3년간 종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였으며, 앞으로 종회 운영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큰집(참판공)과 작은집(좌통례공)의 종회장들과 협의해 가며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종사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종원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관찰사공종회를 한 단계 전진, 도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분은 그동안의 노고와 축하의 뜻으로 꽃다발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볍게 덕담을 나눈 후 인근 명품수제갈비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신임 형래 회장은 송조 덕목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종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전임 재석 회장은 건배사를 제의한 후 참석한 모든 종인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종료하였다.

- 관찰사공종회 총무이사 민재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대위(李大偉)선생

1896년 10월 12일 평안북도 용천군(龍川君) 양서면(楊西面) 북성동(北城洞)에서 아버지 이항준(李恒俊)과 어머니 한옥오(韓玉五)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원규(元奎)이다. 1910년 평북 선천(宣川)의 기독교계학교인 신성학교(信聖學校)에 입학하여 수학하였다.

1911년 10월 이른바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붙잡혀 서울로 이송되던 중 탈출하여 만주로 건너갔다. 1914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유학을 떠나 재정상업학교(財政商業學校)에 입학하여 1916년 8월 졸업하였다. 같은 해 9월 베이징 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하여 1920년 8월 졸업하였다. 베이징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0년 2월 10일 이용설(李容壽), 문승찬(文承贊), 장자일(張子曰) 등과 함께 공리회(共理會) 예배당에서 고려기독교청년회(高麗基督教靑年會)를 조직하여 한국인 유학생의 어학교육과 숙식 주선, 지역 한인의 권익 보호와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1921년 이상재(李商在)와 함께 조선 YMCA연합회가 일본 YMCA의 감독하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세계 YMCA 동맹에 가입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25년 2월부터 세계 YMCA의 후원을 받아 미국 예일대학교 사회학과와 콜롬비아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미국 유학 중이던 1925년 5월 흥사단(興士團)에 가입하여 1926년 12월 흥사단 제13회 뉴욕지방대회의의 서

기로 참석했다.

1927년 8월 4일 다시 국내로 돌아온 뒤 흥사단 국내 조직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총무를 맡았다. 이후 이기태(李基台) 등과 함께 농촌운동 선전 및 농촌지도자 강습, 생활문제 개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개조의 필요성과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연을 진행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히기도 하였다.

1937년 6월 제8회 전 조선면려회 금주운동 실시 전 발송한 문구가 발단이 된 이른바 동우회 사건으로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심을 거쳐 1940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미군 군청 노동부의 노동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정부수립 이후 한국기독교청년회장, 재일 공관 노동 고문 등을 맡았다.

1948년 삼척탄광 이사장, 1955년 건국대 교수



가 되고 1963년 건국대에서 명예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고, 동년 건국대 이사, 건국대 부총장, 건국대 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참고 문헌>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40. 8. 21.

판결문:고등법원 1941. 7. 31.

독립운동사자료집 12. 1977.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1978.

김권정 1920~30년대 이대위의 기독교 사회운동)

- 廣李독립유공자유족회 총무 이호순 記

중인 칼럼

정성은 중복이 아니라 바른 예에서 나온다

- 불천위제(不遷位祭)와 세일사(歲一祀)의 관계를 생각하며 -

우리 광주이씨 문중은 오랜 세월 동안 선조를 정성껏 받들어 왔다. 제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후손들이 뿌리를 확인하고 선조의 정신을 계승하는 중요한 전통이다. 그러나 전통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 뜻과 원칙이 분명해야 하며, 후손들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우리 대종회와 일부 지파 중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천위제와 세일사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왔다. 현재 일부 선조는 불천위로 모시면서도, 다시 세일사를 별도로 봉행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제례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불천위와 세일사의 본래 의미

불천위(不遷位)는 말 그대로 신위를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조상은 4대 봉사가 끝나면(親盡, 친진) 신위를 사당에서 옮기지만, 특별한 공덕이 있는 선조는 예외적으로 신위를 계속 모신다. 따라서 불천위제는 본질적으로 기

제사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세일사는 이미 친진된 먼 조상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묘소에서 봉행하는 제사이다. 즉, 불천위제는 사당에서 기일에 모시는 제사이고, 세일사는 친진 이후 묘소에서 모시는 제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2. 같은 선조에게 두 제례를 병행할 수 있는가

불천위는 신위를 옮기지 않고 계속 봉사한다는 뜻이고, 세일사는 이미 친진된 조상을 묘소에서 모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불천위로 모시는 선조를 다시 세일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례의 의미를 혼동하게 만든다. 불천위 선조의 묘소를 참배하거나 묘역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다시 세일사라는 별도의 공식 제례로 봉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불천위로 모신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세일사 대상 조상과 구별하여 특별히 예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다시 세일사를 병행한다면 불천위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 이는 제사를 한 번 더 지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조를 어떤 예로 모

실 것인가의 문제이다.

3. 정성은 횡수가 아니라 예의 질서에 있다

일부에서는 “제사는 많이 지낼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제례는 단순히 횡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를 어떤 예로 모시는지 그 성격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만약 많이 지내는 것이 곧 좋은 것이라면 같은 선조에게 여러 형태의 제례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례에는 대상과 형식, 시기와 의미가 분명해야 한다.

제례의 품격은 횡수에 있지 않다. 오히려 각 제례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에 맞게 봉행할 때 예의 질서가 바로 선다. 정성은 중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에서 나온다.

4. 관행은 검토의 대상이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은 뜻과 원칙이 살아 있을 때 전통이 된다. 이유를 설명하

기 어려운 반복은 전통이라기보다 관행에 머무를 수 있다. 특히 종중의 제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신적 유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불천위와 세일사의 차이, 그리고 왜 특정 선조를 그러한 방식으로 모시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유림들의 견해와 예법의 취지

필자가 여러 유림들에게 자문한 결과, 불천위로 모시는 선조에게 다시 세일사를 별도로 봉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법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경국대전』 역시 불천위를 단순한 명예 호칭이 아니라 신위를 옮기지 않고 계속 봉사하는 특별한 지위의 제례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불천위와 세일사는 서로 다른 전제 위에 서 있는 제례라고 볼 수 있

다. 물론 문중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천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면 그에 맞는 제례 체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세일사를 병행한다면 그 근거와 명분 또한 분명해야 할 것이다.

6. 우리 대종회가 검토할 과제

첫째, 현재 불천위로 모시는 선조와 그 근거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천위제의 성격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불천위 선조에 대한 세일사 병행 여부를 재검토하고, 병행한다면 그 예법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세일사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제례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7. 맺으며

이 글은 제사를 줄이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선조를 더욱 바르게 모시자는 제안이다.

불천위는 신위를 옮기지 않고 계속 봉사하는 특별한 예우이고, 세일사는 친진 이후의 조상을 묘소에서 모시는 제사이다. 그렇다면 같은 선조에게 두 제례를 병행하는 현재의 방식은 제례의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은 무조건 반복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바로잡으며, 후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전통이 된다. 우리 대종회와 지파 종회가 이번 기회에 불천위제와 세일사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한다면, 그것은 제사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선조를 더욱 품격 있게 받드는 길이 될 것이다.

- 좌의정공파종회장 근환記

재경 화수회 월례회의 개최

송조(조상 숭배)와 종친 간의 돈독한 화합을 이어나가는 재경 화수회가 푸르른 신록의 계절을 맞아 지난 6월 15일(월), 뜻깊은 월례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고 회원 간의 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각지에서 뜻을 함께하는 일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종군(좌통례공파) 회원의 능숙하고 정연한 사회로 막을 열었다. 회의장에는 화수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원로 고문진을 비롯하여,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 그리고 변함없는 애종심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화수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메웠다.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개회 전부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회의의 첫 순서로 화수회 용두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용두 회장은 먼저 바쁜 일상속에서 가문의 대사에 관심을 두고 자리를 함께해 준 원로 고문들과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특히 화수회의 발전은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공을 돌렸다. 이어 용두 회장은 앞으로 송조 돈목(조상을 숭배하고 종친끼리 화합

함)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젊은 세대 종원들이 가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넓혀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오늘 명예롭게 퇴임하는 전임 임원진의 노고를 기리고, 새로 입회한 신입회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포용력 있는 화수회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번 월례 회의에서 가장 뜻깊고 활기찼던 순서 중 하나는 화수회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8명의 신입회원 소개 및 환영식이었다. 이번에 입회한 신입회원들은 여러 지파에서 골고루 참여하여 화수회의 기반을 더욱 넓혀주었다. 소개된 신입회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좌통례공파(左通禮公派): 용면, 민재 회원
- 참판공파(參判公派): 종현 회원



- 광천부원군파(廣川府院君派): 영수 회원
- 문경공파(文景公派): 종환, 현수, 승, 용한 회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은 새롭게 가문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린 8명의 신입회원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아낌없는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신입회원들 또한 각자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화수회의 일원으로서 선조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 종친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전하였다.

- 재경 화수회 총무 윤태記

광주이씨 화수회의 활력소, 광이산악회의 위대한 발걸음!

상반기 결산 산행서 역대급 기록 달성하며 화합의 장 다져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대자연 속에서 우리 광이 산악회(회장 영교(永敎))가 마침내 6월의 뜨거운 열정으로 위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6월 28일(일), 2026년도 상반기 산행을 총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산악회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종친 간의 뜨거운 우애와 건강미를 과시했습니다.

이번 산행은 수서역을 출발하여 매봉역에 이르는 '대모산 둘레길 구간' 총 8km 코스로 진행되었다. 절대 만만하지 않은 역대급 장거리 코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참가자 32명 전원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당당하게 완주하여 목표지점인 매봉역 식당까지 모두 안착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이번 산행의 가장 큰 감동은 우

리 산악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선배이신 8학년(80대) 어르신 세 분(하재, 문수, 근원 회원님)의 활약이었다. 세 분 모두가 청년 못지않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8km 전 구간을 완주하여, 종원들에게 깊은 귀감이 됨과 동시에, 광주이씨 가문의 굳건한 기상을 심본 발휘하였다. 원로급 회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지켜본 참가자 전원은 한

<다음 페이지에 계속>



마음으로 기뻐하고 부러워하며, 어르신들의 무병장수와 영원한 건강을 마음 깊이 기원했다.

또한 이번 산행은 대종회 총 10개 지파 중 문숙공파를 제외한 무려 9개 지파의 종원들이 끌고루 참여하여, 산악회를 중심으로 우리 화수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끈끈하게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인원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올해 시산제와 5월 행사를 제외한 순수 산행 4회의 평균 참석 인원이 31명에 달했으며, 이번 6월 산행에는 역대 최대인 32명이 동참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우리 산악회는 다가오는 하반기에 평균 참석 인원 40명의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자 한다. 많은 종인들의

참여와 격려를 기대한다.

[7월 산행/행사 안내]

둔촌 선조 묘역 벌초 및 묘역 관리 평가회

내년 2027년 둔촌 선조 탄생 700주년이라는 뜻깊은 대사를 앞두고, 조상님을 기리고 묘역을 정성껏 가꾸기 위한 중요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벌초는 가문의 역사적인 기념해를 준비하는 시발점인 만큼, 산악회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종원의 동참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 행사 개요

- 일시: 2026년 7월 12일 (둘째 주 일요일)
- 장소: 성남 둔촌 선조 묘역 (집결지: 추모재 - 둔촌 선조 재실- 앞)

나. 팀별 집결 시간 안내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 각 역할별로 집결 시간이 다르오니 확인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팀: 오전 7시 집결 (행사 장비 및 물품 점검 및 사전 준비)
- 벌초팀: 오전 8시 집결 (묘역 정비 및 본격적인 벌초 작업)
- 평가팀: 오전 9시 집결 (묘역 관리 상태 전반 평가 및 하반기 계획 논의)

문의: 윤태 등반대장 : 010-8358-5399
영교 회장 : 010-3125-9648

광주이씨 청장년 연합회 소식 2026년도 2/4분기 대의원총회 성료

광주이씨 청장년 연합회(회장 중우) 2/4분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6월 21일(일) 11시, 대전 한국효 문화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 식순은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조상님에 대한 묵념, 회장 인사 말, 각 지역 청장년 소개 및 활동사항보고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 안전심의

제1호안은 : 각 지역 청년회원 증원방안 논의
청년 회원 증원 일환으로 경남지역 청년회 모임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의 청년모임의 활성화와 그 대책방안을 논의 하였다. 청년 활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간 가교 역할을 위한 대책과 모색방안을 숙제로 남겨 두었다

제2호안 : 2027년도 연합대회 개최방안 및 의견개진

2027년은 둔촌 선조 700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해에 열리는 일정관계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

하여 의견 개진을 하였다

1. 대종회 행사와 별도로 연합대회 행사진행
2. 대종회 행사와 연계하여 연합대회 개최
3. 대종회의 행사 지원 방향에 따른 결정안

기타 1년 연기안이 개진되었으나 2호안건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없이 의론수렴으로 각 지역 회장단과 심도 있게 재 논의하여 3/4- 4/4 분기회의때 가시적 방안을 제시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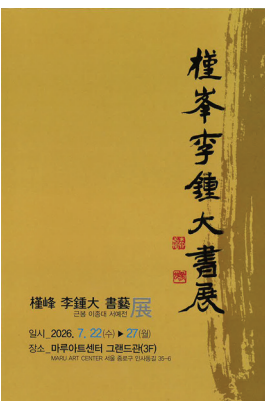
이와 관련 대종회 상임부회장(주홍)이 취임 인사겸 청장년 활동에 대한 감사인사와 둔촌 선조 700주년 기념행사 기획 및 추후 진행 일정을 간략히 소개 하였다



기타 1/4분기 대의원 총회 보고사항이 있었다.

1. 감사선임
2.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 추인건
3. 대의원총회 관련 문서전달사항 변경

근봉 이종대 서예전



선조께서 물려주신 학문과 예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붓끝에 그 뜻을 담고자 애써 온 문경공파 종대(鍾大) 현종의 서예 개인 전시회가 있습니다.

종대 현종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벼루를 벗고, 먹을 갈며, 붓끝에 마음을 실어 한 자 한 자 정성을 다해 써 왔으며, 글씨를 익힌다는 것은 기교를 자랑함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닦아가는 일이라 생각하며, 오랜 시간 화선지에 갈고 닦은

묵향의 작은 결실을 모아 감히 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귀한 걸음 하시어 작품을 살펴보시고, 따뜻한 가르침과 격려를 주신다면, 앞으로의 정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전시명 : 근봉 이종대 서예전

■ 작가 : 문경공파 22대손, 양호당종회 재무이사, 대종회 대의원, 전북 남원 귀촌

■ 기간 : 2026년 7월 22일(수) ~ 7월 27일(월)

■ 오픈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3시

■ 장소 : 마루아트센터 그랜드관(3층,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6)

- 문경공파종회 총무 종환記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초등부 대상

둔촌 이집의 노래

서당초등학교 6학년 김현규

바람에 이는 풀잎 유연함마저 부러울 새
소박한 토굴을 지키는 이 몸의 끝은
곧디 곧아 부러질 수가 없음에 괴로우나

죽어도 죽을 수 없고
살아도 살 수 없을지라도
왕을 위협하는 경박한 가지는
내 님이 될 수 없지요

그래 아비 등에 업고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절개, 충의 모아 자리해
둔촌에 터 잡아 자리하였지요

“자손에게 금을 물려주는 것이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며 가르쳤지요

정갈한 가르침은 후손이 묶어 둔촌 유고로 남아
그래 남은 돌이 되고 뼈가 되어
풀새에 이는 바람으로 그대 곁에 남았지요.

초등부 장원

나는 둔촌 선생입니다

미사중앙초등학교 6학년 류연재

나는 둔촌 선생입니다

나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싶었던
고려의 한 선비였습니다

혼란한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끝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씁니다

나는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먼 훗날의 후손들에게
남겨 줄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
그것은 ‘효’ 였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은
끝끝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세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
그것은 ‘충’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충’ 은
결코 한 사람의 임금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마음
나라를 향한 사랑
곧 애국이었습니다

중등부 대상

그리움

둔촌의 일편단심

오포중학교 1학년 서영민

광주별 푸른 기운 속에 대의를 품고
난세의 순간마다 곳곳이 선비의 서슬을 세워
이름과 삶을 숨긴 채 깊은 광주의 둔굴로 들어갔으니
신돈의 박해 속에서도 그 지조만큼은 꺾이지 않았네

자손에게 황금이 아닌 경서를 주어주시면
“시간을 아껴라 청렴이 보배다” 간곡히 일러주시니

일자산 자락 바람결에 세운 그 날의 훈교는
천년 세월 넘어 대대로 흐르는 등불이 되었네.

고려의 저무는 노을 아래 고요히 붓을 놓고
여주 들판 푸른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니
선생이 머물고 간 자리마다 둔촌의 향기가
오늘날 광주굴에 고결한 빛으로 남았네

중등부 장원

둔촌

수현중학교 1학년 오서연

둔촌에 달빛만 고인다.
부르던 이름은 두고
사람 하나 산으로 모습을 감췄다.

소복소복 눈 쌓인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만 지나가고
말한마디 오가지 않는다

둔촌의 마음은 고요하고
넓은 책장만 스르륵 스르륵 넘겨진다.

세상은 둔촌과 멀어졌으나
버린 것은 아니어서
그는 끝내 흔들리지 않는다

중등부 장원

나의 속도

성일중학교 3학년 유 연 승

시간은 늘 나를 앞질러 간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채
하루의 끝을 바라보곤 한다.
문득 나는
타인의 걸음과 나의 걸음을 비교하며
쉴데없는 조급함을 키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각자의 길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는 법이다

빠름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느림이 틀린 것도 아니다.

더도 말고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일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서두르지 않기로 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나의 시간을 걸어간다.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순간이
부끄럽지 않은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고등부 대상

둔촌 선생님을 세상에 외치다

보라고등학교 3학년 김 연 재

글만큼 영상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글은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상은 이미지, 소리, 편집 효과 등 다양한 요소로 감정을 빠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종합예술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끊임없이 독서와 글쓰기를 이어오면서 나의 꿈은 항상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였다. 시대가 변하고 영상 매체가 발전하며 내가 쓴 글이 영상화되어 만들어진다면 더욱 현실적이고 풍부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그렇게 방송작가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마음에 품고 공부를 하였다.

방송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이다. 엄마는 나의 꿈을 응원하면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사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남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나만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보며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장항준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면서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그동안 둔촌 선생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알던 내용과 비교해 보니, 만약 둔촌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면 어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홍도, 그는 뛰어난 용기의 사람이다.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을 초개같이 버리고 차디찬 단종의 시신을 건져내서 몰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는 조그만 고을, 광천골의 촌장이기에 국가의 녹을 먹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어린 단종이 그저 불쌍했을 뿐이다. 비록 18살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고 아무런 죄 없이 삼촌의 지나친 정치적 욕망에 희생되었다.

차가운 강물에 시신이 버려져 동동 떠다니는 처참한 모습에 마음이 미어지지 않았을까. 궁궐의 마음을 건널 수가 없어서 멸문지화를 각오하

고 용기를 낸 것이다. 이후 엄홍도는 두 아들과는 헤어지고 차남과 문경으로 피신하여 숨어 살아가았다.

엄홍도의 행동에서 둔촌 선생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둔촌은 요승 신돈의 전황이 안타까웠다. 여기저기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비들은 허만 끝끝 차고 있었다.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이 따로 없다. 둔촌은 이 광경을 지켜만 볼 수 없었기에 직접 나서야 했다. 자신이 앞서서 신돈을 비난하고 조롱하여 사람들에게 용기를 넣어주려고 한 것이다.

강물에 던져져서 며칠간 떠다녔기에 시신은 퉁퉁 불었울 것이다, 혼자 힘으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세 아들에게 은밀히 말하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같이 시신을 건져내어 관에 넣고 산으로 향하였다.

세 아들은 분명한 효도다. 아버지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효심이다. 산길을 걸으며, 이 네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서로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을 것이다. 침묵만이 그들의 뜻을 함께했을 것이다. 돌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을 지키기 위해 세 아들은 장례 후 흩어져야 했다.

둔촌은 늙은 아버지가 걱정되었다. 본인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받을 일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기필코 산속으로 숨어야 했다. 마침, 큰 바위가 가까이에 있었다. 이곳을 ‘둔촌’이라 불려서 호로 삼았다.

그곳도 안심할 수는 없었다. 늙은 아버지를 업고 의탁할 곳으로 피신해야 했다, 그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분명히 아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아들은 청백리로 유명한 이지직. 늙은 아버지를 아들과 손자가 교대로 업고 걷고 뛰는 모습을 영화로 만든다면 모두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이집은 둔촌으로 아들 이지직은 탄천으로 지명을 남겼으니,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둔촌을 도와주면 엄벌하겠다는 공고문이 붙었을 때 친구인 천곡 최원도는 단단히 준비하였을 것이다. 천곡은 둔촌 부자를 처음에는 꾸짖는 척을 하며 4년이나 숨겨주었다. 2년 뒤, 둔촌의 부친 이당이 세상을 떠나자 자신의 모친 묘소 밑에 장지를 허락하였다.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 아버지의 묘소, 그곳은 경북 영천 광릉에 위치해 있다.

중국 우정의 표본이라고 하는 판포지교에 결코 뒤질 수 없는 둘의 우정이다. 둔촌의 후손은 산밑에 보은당을 지어 천곡의 은혜를 추모했다고 한다. 영화로 나온다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누각이 될 것이다.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았던 주인의 밥그릇이 늘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종 제비는 주인 마님에게 말하였다, 마님은 남편의 우정을 알았기에 이 사실을 숨기라고 하였다. 여종 제비는 자결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것이 그녀가 비밀을 유지한 방법이다.

이들의 충절과 우정과 효도를 영원한 비밀로 만든 연아의 절개, 이후 두 집안은 제사 끝에 연아에게도 잔을 올려 세 번째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둔촌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조연은 친구 백원도와 제비가 될 것이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꼭 이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 대중들은 아마 이 놀라운 역사적 이야기를 모를 것이다.

둔촌 이집이라는 사람이 실존한 지도, 그의 일생에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지도 말이다. 충절과 우정과 효도가 모두 녹아든 둔촌 이야기를 더 넓은 세상에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시간이 흘러도 둔촌이 남긴 유산은 영원할 것이다.

둔촌 선생 탄신 7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고려 말의 포은(圃隱) 정몽주, 목은(牧隱) 이색, 아은(冶隱) 길재, 삼은(三隱)과 사상을 교류하며

한시대의 정신적 지주로서 귀감이었던 큰 스승, 둔촌 이집 선생의 고결한 정신을 잇다”

당대의 대유학자이자 충절의 상징, 둔촌 이집 선생의 탄신 7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창의적이고 뜻깊은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1. 공모 개요

가. 공모명 : 둔촌 이집 선생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슬로건 공모전

나. 공모 주제 :

- 1) 둔촌 선생의 충정, 효행, 학문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내용
- 2) 탄신 70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가치를 담은 문구

다. 공모 형태 : 20자 내외의 문구 (한글, 한문, 영문, 기호 등 사용 가능)

2. 참여 대상

둔촌 선생을 경모하는 누구나 (**광주이씨 종친에 한하지 않음**)

3. 공모 일정

가. 접수 기간 : 2026년 7월 1일 ~ 8월 31일 (62일간)

나. 결과 발표 : 2026년 8월 31일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4. 시상 내역

가.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행사 공식 슬로건으로 활용)

나. 우수상 3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다. 장려상 6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라. 참가상 : 문화상품권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접수 방법

가. 온라인 접수 : 대종회 홈페이지

나. 제출 서류 : 공모전 응모 양식 1부(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홈페이지에서 다운 (슬로건은 1인당 1개 응모 가능)

다. 접수처 : 광주(廣州)이씨대종회 사무국(이메일, 우편접수, 홈페이지 참조)

6. 문의처

• 광주이씨대종회 / 둔촌선생 탄신700주년 기념사업회

• 전화번호 : (02)735-1720

• 홈페이지 : gwanglee1720@nate.com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으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6年 7月 1日

<제422호>

廣州李氏會報

발행인 : 이 주 영

편집인 : 이 주 풍

주 간 : 이 중 덕

발행처 : 광주이씨대종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6년 6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인수	20,000	부산 금정	이수전	10,000	대구 중구	이희성	10,000	충북 청주	이문수	10,000	인천 남동
이용익	10,000	서울 송파	이승진	10,000	대구 수성	이태수	10,000	경기 수원	이영재	10,000	서울 마포
이철래	20,000	경기 포천	이승호	10,000	대구 북구	이은수	10,000	충북 청주	이민재	10,000	서울 중랑
이인교	10,000	서울 종로	이창주	10,000	경북 칠곡	이규환	10,000	강원 양양	이종옥	10,000	경기 고양
이남재	10,000	경기 여주	이택동	10,000	대구 중구	이청수	10,000	대전 동구	이찬수	10,000	서울 중구
이종오	10,000	경기 동두천	이택영	10,000	대구 북구	이치수	10,000	인천 연수	이승호	10,000	충남 태안
이상기	10,000	경북 칠곡	이택완	10,000	경북 경산	이정환	10,000	강원 양양	이달수	10,000	경기 수원
보광회 20X10,000=200,000			이택은	10,000	대구 달성	이해수	10,000	서울 노원	이복수	10,000	서울 구로
이용익	10,000	서울 금천	이택홍	10,000	대구 수성	이동희	10,000	경기 남양주	이종호	10,000	서울 노원
이종길	10,000	서울 강남	이택후	10,000	대구 중구	이주석	10,000	서울 용산	이계훈	10,000	서울 양천
이용도	10,000	서울 서초	이택만	10,000	경북 포항	이주호	10,000	충북 청주	이명수	10,000	경기 광주
이태호	10,000	서울 마포	이헌진	10,000	경북 칠곡	이두수	10,000	충남 천안	이종하	10,000	충남 서천
이민재	10,000	경기 고양	이혈진	10,000	경북 칠곡	이을수	10,000	경기 성남	이종서	10,000	경기 고양
이용발	10,000	경기 용인	이홍주	10,000	대구 수성	이주헌	10,000	충북 청주	이민수	10,000	서울 중랑
이순재	10,000	서울 서초	이후진	10,000	대구 수성	이주명	10,000	경기 수원	이종신	10,000	경기 포천
이광래	10,000	서울 서대문	이완필	10,000	경북 칠곡	이창우	10,000	세종 절재로	이주상	10,000	서울 도봉
이종구(의원)	10,000	서울 강남	이택열	10,000	경북 구미	이영재	10,000	인천 계양	이종림	10,000	충남 서천
이용균	10,000	경기 의정부	이택수	10,000	경북 칠곡	이협재	10,000	서울 관악	이종주	10,000	경기 양평
이정재(한실)	10,000	서울 관악	이정진	10,000	대구 북구	이인재	10,000	인천 연수	이범수	10,000	서울 송파
이용만	10,000	경기 부천	이석진	10,000	경북 칠곡	이용달	10,000	경기 여주	이경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광재	10,000	서울 동작	이덕진	10,000	대구 수성	이수재	10,000	경기 여주	이현래	10,000	경기 남양주
이종걸	10,000	경북 구미	이유진	10,000	서울 송파	이운재	10,000	서울 영등포	이용탁	10,000	경기 남양주
이종률	10,000	서울 서초	좌통례공파 부사공종회 141X10,000=1,410,000			이이재	10,000	서울 구로	이억래	10,000	경기 하남
이호재	10,000	서울 영등포	이명수	10,000	서울 서초	이석재	10,000	경기 여주	이홍재	10,000	서울 구로
이용재	10,000	서울 성동	이근수	10,000	세종 연서	이남재	10,000	경기 여주	이도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종승	10,000	경기 부천	이인수	10,000	부산 금정	이종영	10,000	서울 강동	이춘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용남	10,000	서울 강남	이종균	10,000	세종 연서	이종옥	10,000	충남 천안	이문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홍재	10,000	서울 용산	이학수	10,000	충북 청주	이종설	10,000	경기 안산	이주혁	10,000	경기 양주
목사공파 19X10,000=190,000			이중수	10,000	세종 연서	이종성	10,000	서울 신내	이대래	10,000	경기 용인
이병진	10,000	경기 파주	이해수	10,000	인천 계양	이종식	10,000	경기 여주	이종혁	10,000	경기 양평
이종후	10,000	경기 동두천	이지수	10,000	세종 조치원	이종훈	10,000	경기 고양	이우재	10,000	인천 연수
이종인	10,000	인천 계양	이권수	10,000	세종 연서	이종오	10,000	서울 동대문	이용우	10,000	경기 남양주
이범수	10,000	경기 이천	이범수	10,000	세종 연서	이종승	10,000	서울 노원	이용한	10,000	서울 중랑
이치구	10,000	충북 보은	이대수	10,000	세종 조치원	이종목	10,000	서울 중랑	이민래	10,000	경기 고양
이석구	10,000	경기 성남	이도수	10,000	세종새롬남로	이종국	10,000	경기 남양주	이성민	10,000	서울 마포
이재구	10,000	인천 서구	이성수	10,000	세종 조치원	이종훈	10,000	경기 여주	이동래	10,000	경기 고양
이구현	10,000	대전 유성	이용수	10,000	세종 연서	이종덕	10,000	경기 여주	이성호	10,000	경기 양평
이병석	10,000	경기 안성	이주환	10,000	세종 연서	이종택	10,000	경기 구리	이기수	10,000	세종 조치원
이화준	10,000	경북 영주	이주식	10,000	충남 천안	이향재	10,000	경기 구리	이종우	10,000	경기 안양
이정훈	10,000	서울 송파	이주열	10,000	세종 조치원	이종균	10,000	경기 안성	이종석	10,000	경기 남양주
이홍걸	10,000	경기 파주	이갑수	10,000	경기 성남	이종윤	10,000	경기 용인	이종진	10,000	경기 성남
이성열	10,000	경기 의정부	이주상	10,000	경북 포항	이종대	10,000	경기 여주	이종헌	10,000	서울 강서
이춘만	10,000	경기 군포	이헌수	10,000	서울 마포	이도형	10,000	경기 남양주	이영재	10,000	충남 당진
이좌운	10,000	서울 동대문	이진수	10,000	서울 동작	이종윤	10,000	충남 당진	이성재	10,000	강원 춘천
이종윤	10,000	경기 용인	이주웅	10,000	세종 연서	이종덕	10,000	서울 구로	이용각	10,000	경기 남양주
이택호	10,000	충북 보은	이동희	10,000	세종 달빛로	이상수	10,000	경기 안양	이용릉	10,000	경기 남양주
이성우	10,000	경기 양주	이창희	10,000	세종 연서	이영수	10,000	경남 양산	이용민	10,000	경기 남양주
이영균	10,000	인천 서구	이태수	10,000	세종 보듬4로	이흥수	10,000	전북 전주	이용명	10,000	경기 남양주
석전종중동산회 25X10,000=250,000			이흥수	10,000	강원 삼척	이현수	10,000	경기 평택	이달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동진	10,000	경북 칠곡	이현수	10,000	충북 청주	이용삼	10,000	경기 남양주	이용필	10,000	서울 강남
이수덕	10,000	대구 달서	이치수	10,000	대전 서구	이종열	10,000	경기 남양주	이대정	10,000	서울 강북
이수생	10,000	대구 수성	이종현	10,000	세종 연서	이일수	10,000	인천 남구	이원재	10,000	인천 중구
			이관수	10,000	서울 영등포	이창수	10,000	경기 여주	이건재	10,000	경기 양주
			이학수	10,000	충남 아산	이학수	10,000	서울 은평	이용원	10,000	인천 서구
						이종무	10,000	서울 동대문	이용배	10,000	경기 용인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